

10주. 테베 왕가 안티고네의 비극과 크레온의 몰락



10-1교시-

안티고네, 크레온의 명령을 거부한 채,
폴뤼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름

테베 가문의 비극과 <안티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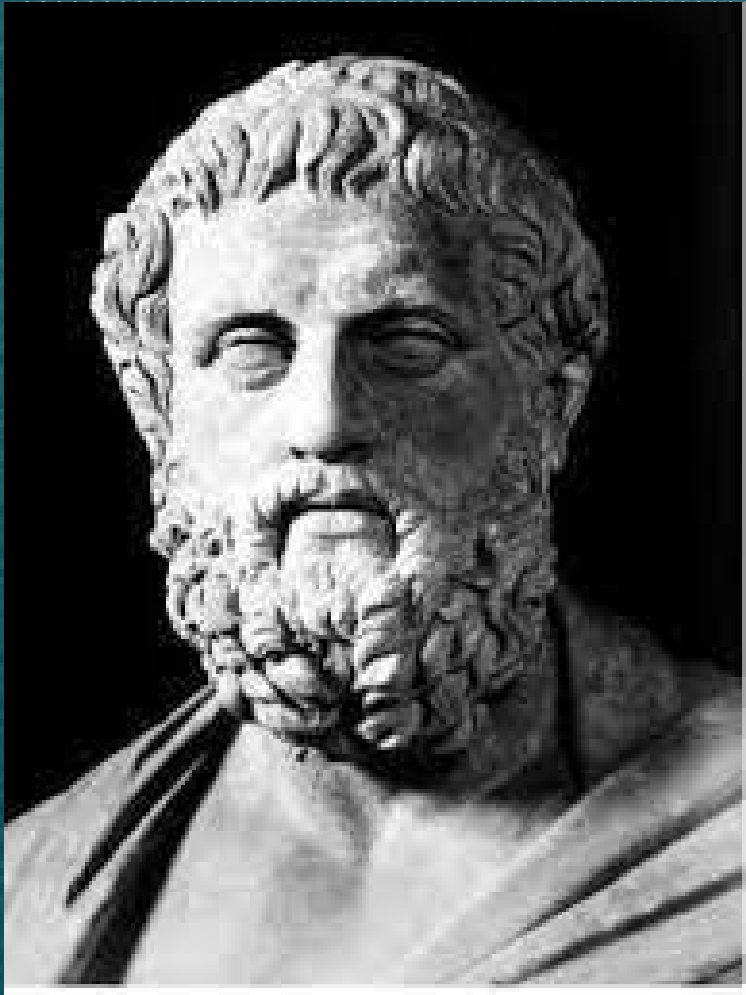


○ 테바이 지역 전설에 기반하여 창작됨 <오이디푸스 왕>도 유사

○ 연관 작품: 아이스킬로스의 <테바이를 공격한 7인(의 장군)>

○ 내전 중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 사망 뒤 남계 혈통 단절된 뒤 <안티고네> 시작

다른 작품들과의 연관성



- 오이디푸스 사건 순서에 따라,
 <오이디푸스 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아테네 콜로노스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의 추방과 저주



○ 오이디푸스가 테바이에
서 쫓겨날 때, 아들들은
아버지의 추방을 수수방
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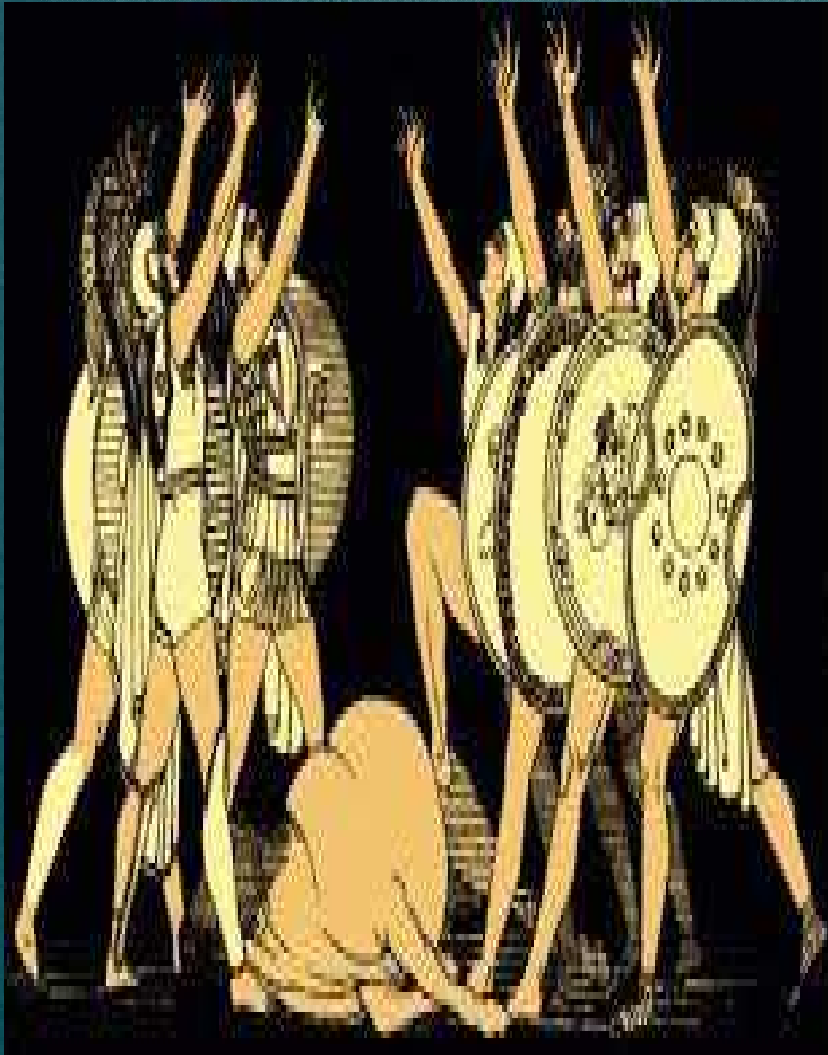
○ 이에 오이디푸스는 아들
들을 저주하고 테바이를
떠나며, 하지만 딸들은
신적 중에도 안티고네는
아버지 테베에 머물고, 이스메네는 테

아폴론 신탁과 오이디푸스의 명예



- 아폴론 신탁: “테바이 안
녕은 오이디푸스에게 달려
있다.” (<콜로노스의 오이
디푸스>)
- 아폴론은 이 신탁으로 오이
디푸스의 명예 회복시켜 줌
-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아들
들은 골육상쟁의 권력투쟁
에 빠짐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



○ 1년 간의 에테오클레스
와 폴뤼네이케스 교대통치
합의, 하지만 에테오클
레스가 배신함

○ 폴뤼네이케스가 아르고
스공군대를 일으켜 테바이
공격

○ 오이디푸스를 자기 편으
로 삼는 자가 이길 것이라
는 신탁(<콜로노스의 오
이디푸스>

폴뤼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 사망 (아이스킬로스 <테바이를 공격한 7인>)

- 폴뤼네이케스는 **아드라스토스** 왕이 다스리는 **아르고스**로 가 사위. 칼리돈의 왕자 **티데우스**도 사위. 아드라스토스 왕은 사위들의 왕위를 되찾아줄 것을 약속.
- 폴뤼네이케스는 자신과 티데우스를 포함한 **일곱 장군이 이끄는 아르고스 군대를 거느리고 테베를 침공**. 하지만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 모두 사망함

〈안티고네〉 배경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의 사망



폴뤼네이케스의 시신을 수습하는 안티고네

<안티고네> 텍스트 분석



- 테베 내전 시,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 사망
- 오이디푸스 가문의 남자 쪽 혈통 단절
-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극단적으로 대립함

왕이 된 크레온, 폴뤼네이케스의 시신 매장 금지 명령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R.: A. Sanin. Kuenstlertheater Moskau 1899

프롤로고스: 1-100행,
등장가: 101-163행

- 프롤로고스: 크레온, 폴뤼네이케스 시
신 매장 금지령, 이에 저항하는 안티고
네와 순응하는 이스메네, 안티고네의
의지는 확고
- 등장가: 코러스가 강조하는 것은 폴뤼
네이케스의 죄

1.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대화

안티고네: 너는 나와 노고와 행동을 같이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해.

이스메네: 무슨 모험을 하시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안티고네: 네가 나의 이 손을 도와 시신을 들어 올려주지 않겠니?

이스메네: 도시에 금령이 내렸는데도 그분을 묻어줄 작정이세요?

안티고네: 그래, 나는 오라버니에 대하여 나의 임무를,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다면, 네 임무를 다할 작정이야. 나는 결코 그분께 배신자가 되지는 않을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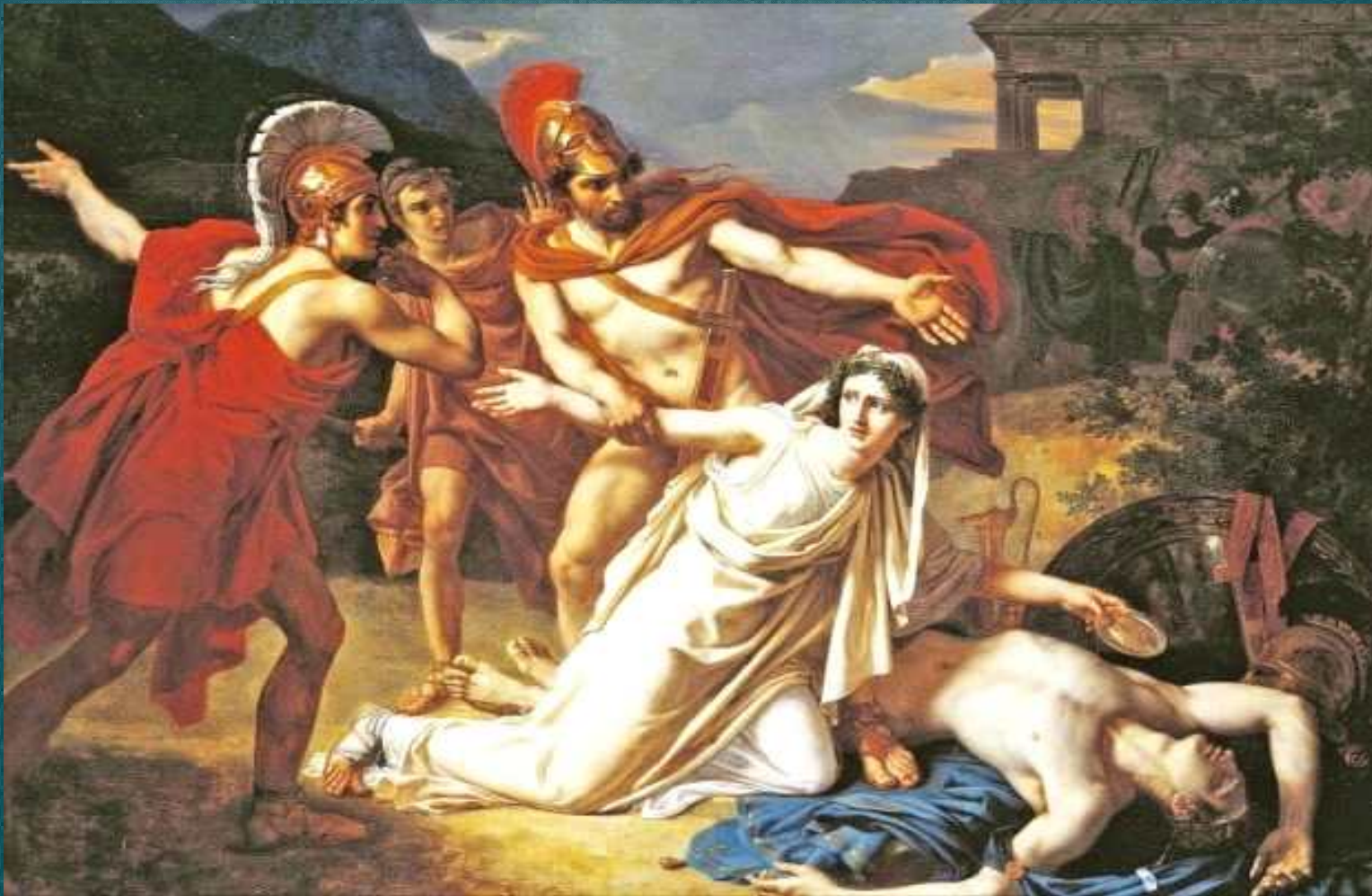
2. 크레온, 자신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시민들에게 공포

크레온: 에테오클레스는 우리 도시를 위하여 싸우다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창수로서 전사하였으니, 그를 무덤에 묻어주고 지하의 가장 훌륭한 사자들에게 어울리는 온갖 의식을 베풀 것이오.

그러나 그와 형제 간인 **폴리네이케스**는, 내 말하노니, 추방에서 돌아와 조국 땅과 선조들의 신들을 화염으로 완전히 불사르고, 친족의 피를 마시고, 나머지는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니 그와 관련하여 나는 도시에 알리게 했소이다.

아무도 그에게 장례를 베풀거나 애도하지 말고, 새 떼와 개 떼의 밥이 되고 치욕스런 광경이 되도록 그의 시신을 묻히지 않은 채 내버려두라고 말이오.

영상1-폴리네이케스의 장례 치러는 안티고네



이때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은 크레온에게 누군가가 시신을 묻어주고 장례를 치르고 갔다는 사실을 두려움에 떨며 보고하자, 크레온은 그 범인을 잡아 오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죽음보다 더 심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합니다.

3. 이후 파수꾼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에 장례를 치러준 안티고네를 잡아 와 크레온 왕에게 이렇게 경위를 밝힙니다.

파수꾼 (...) 이 소녀가 눈에 띄었는데, 마치 새끼들을 빼앗기고 빈 등지만을 보게 되었을 때의 새처럼 날카로운 소리로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이 여인도 시신이 드러난 것을 보자 소리 높이 통곡했고, 그런 짓을 한 사람들에게 심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두 손에 목마른 먼지를 가져오더니 잘 만든 청동 물항아리를 들어올려 시신 주위에 세 번 제주를 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즉시 붙잡았으나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첫번 일과 이번 일을 그녀의 소행이라고 꾸짖었으나 그녀는 조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2- <달콤한 인생> - 강사장의 폭력과 선우의 분노



토론 주제

영화의 주인공 선우(이병헌)는 안티고네, 강사장(김영철)은 크레온을 닮았다. 강사장의 부당한 명령에 선우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에 선우는 분노하고, 그를 살해한다.

선우의 분노와 저항을 안티고네의 분노 및 저항과 연관하여 토론해보자.

10-2교시- 크레온의 폭정과 안티고네의 저항

영상3- 안티고네의 저항

크레온 vs 안티고네: 신법이나 실정법이나?



○ 크레온: 성문법, 국가 (Polis)의 실정법이나,
- 크레온의 명분: 사적 이해는 공적 이해에 종속되어야 함
- 불복종보다 더 큰 악은 없다. (672행)

○ 안티고네: 불문법, 즉 신법 이냐?
- 안티고네의 명분: 죽은 자에게 장례의식을 치러 주는 것은 신법이고 불문을

노모스 vs 노미마



○ 안티고네, 법개념으로 노모스(nomos) 대신 노미마(nomima) 사용, 노미마는 기원전 5-4세기에 관습적 장례식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것, 신들의 법과 유사

○ 폴뤼네이케스가 반역자라는 크레온의 주장에, 안티고네, “죽음은 모든 망자에게 동일한 법을 요구한다”(519행)이라 답변

4. 크레온은 이스메네도 잡아 오도록 명령. 이스메네는 크레온에게 안티고네와 장례에 가담했다고 거짓 시인

이스메네: 그대는 친아드님의 약혼녀를 정말로 죽일 작정이세요?

크레온: 그가 씨를 뿌릴 밭은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스메네: 그러나 그분과 언니같이 서로 잘 맞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어요.

크레온: 나는 아들에게 악처를 원치 않는다.

안티고네: 오오 사랑하는 하이몬, 그대가 아버지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니!

크레온: 귀찮다, 너도 네 결혼도!

코러스장: 정말로 아드님에게서 그녀를 빼앗을 작정이시요?

5. 안티고네의 약혼자이자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은 아버지에게 안티고네를 풀어줄 것을 요청

하이몬: 저는 그 소녀를 위하여 도시가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죄 없는 그녀가 가장 영광스런 행위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자신의 친오라버니가 피투성이의 전투에서 쓰러졌을 때, 날 고기를 먹는 개 떼나 새가 먹어치우도록 묻히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지 않았던 그녀야 말로 황금 같은 명예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

이런 소문이 어둠 속에서 은밀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6.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혼자 무덤에 가두어 놓으라고 명령. 안티고네는 지하 무덤에 갇힘

안티고네: 무덤이여, 신방이여, 석굴 속의 영원한 감옥이여, 그리로 나는 내 가족들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 폴리네이케스 오빠, 내가 당신의 시신도 돌보아드린 까닭에 이런 보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법에 따라 나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존중했건마는, 그것이 크레온 님에게는 범죄 행위로, 무서운 반역 행위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완력으로 붙잡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 테바이 땅의 조국 도시여, 그리고 그대들 우리 집안의 오래된 신들이여, 저들이 나를 끌고 가니, 나는 더는 지체할 수 없군요. **보세요, 테바이의 지배자들이여, 왕가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딸인 내가 신성한 것을 신성시켰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5막(988-1114행): 테이레시아스의 충고



다르카소스의 미레를 예언하는 테이레시아스

○ 시신 매장을 금함으로
써 크레온과 국가에 죄
와 오명이 씌었음을 알
려줌

○ 코러스는 애틋고네를
풀어주고, 시신을
라고 하나, 크레온은 그
반대로 행함

○ 테이레시아스의 충고를
문시함으로써 크레온은
큰 파국에 빠짐

7 테이레시아스의 경고

테이레시아스: 잘 알아두시오. 그대는 자신의 혈육 가운데 한 명을, 시신들을 위한 시신으로 바치게 될 것이오. 왜냐하면 그대는 지상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 한 명을 아래로 밀어내고, 살아있는 자를 무자비하게도 무덤 속에서 살게 하는가 하면, 하계의 신들게 속하는 시신을 장례도 치르지 않고, 매장도 하지 않은 채 옥보이며 이 지상에 붙들어두고 있기 때문이오. 시신들에 대해서는 그대에게도, 상계의 신들께도 권한이 없으며, 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들 신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오. ... **하데스와 복수의 여신들이 그대를 노리고 있으며, 그대를 똑같은 재앙으로 엄습할 것이오.**

영상4-종막(1154-1353행): 안티고네, 하이몬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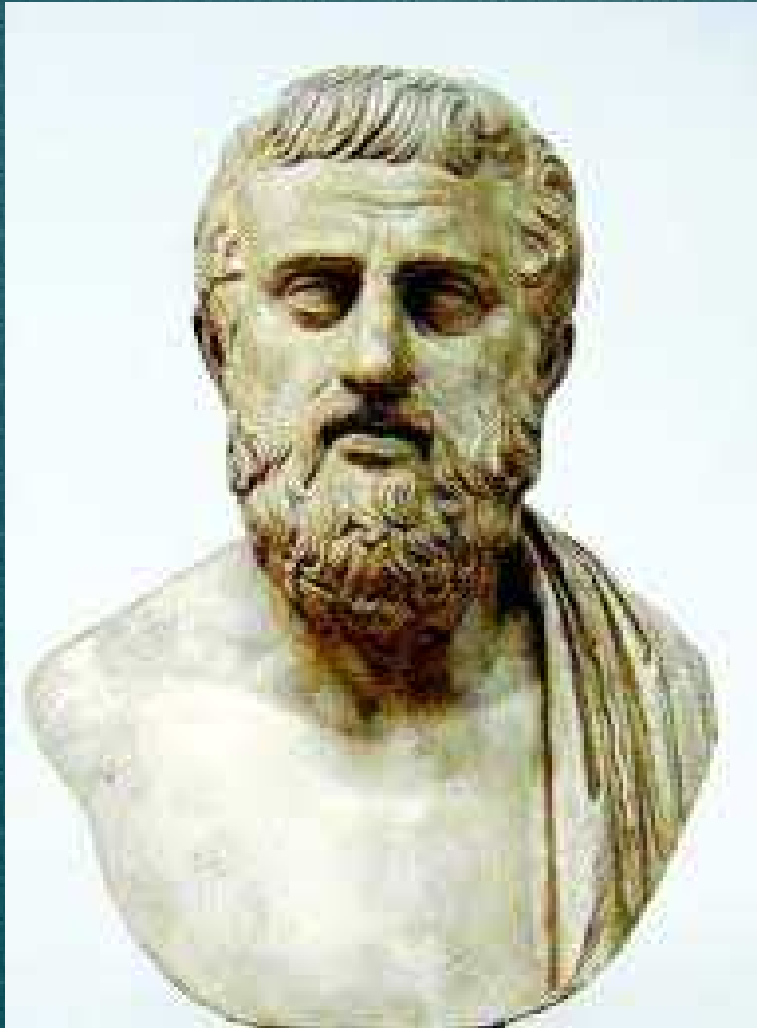
㉾ 테이레시아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크레온은 그녀를 구하지 못하고, 그녀는 석굴에서 자살함

㉿ 하이몬, 아버지 크레온에게 침을 뱉고 죽이려하나 실패, 그 역시 그녀 곁에서 자살함

8 크레온, 테이레시아스의 충고 경청, 하지만 안티고네, 하이몬 자살함

신하: 왕비님, ... 우리는 소녀가 ...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그는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쓰러진 채 ...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크레온)께서는 그를 보시자,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울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은 그분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더니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열십자 손잡이의 칼을 뺏으나, 아버지께서 도망쳐 뛰어나오시는 바람에 그분을 맞이하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불운한 그는 자기 자신에 화가 나서 즉시 칼에 몸을 기대며, 칼을 반이나 옆구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직도 정신이 있는 동안 축 늘어진 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다 쓰라린 핏방울들을 팔팔 쏟았습니다.**

왕비 에우뤼디케의 자살



왕비 에우뤼디케 아들
하이몬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녀 역시 자살함

크레온 이미 아들 메가
레우스 '천사 합' 크레온과
유일한 차식하 '하이몬'을
아내마저 자살함 모든
고독 철망 '죽음'보다 더한
고독 속에 빠짐

안티고네의 비극 결국
테베의 지배 가문 전체의
멸망

9 왕비 에우리디케 자살, 크레온 자신의 잘못에 괴로워함

크레온: 나를 길 밖으로 데려 나가거라,
이 어리석은 인간을!

나는 본의 아니게, 내 아들이, 너를 죽였구나, 그리고
그대까지도, 내 아내여!

아아 나야말로 비참하구나.

나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하고, 어디로 향해야 할
지 모르겠구나. 내 손에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고,
내 머리 위로 참을 수 없는 운명이 뛰어올랐음이라.

크레온: 1261-1269, 코로스: 1270

아아!
분별없는 생각의 가혹하고도
치명적인 실수여!
그대들은 보시구려,
한 핏줄에서 나온 살해자와 피살자를!
아아, 슬프도다, 불행한 내 결정이여!
아아, 내 아들아, 이런 젊은 나이에,
아아, 슬프고 슬프도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다니!
네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대는 정의가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소이다.

크레온: 1294-1300

아아!

저기 두 번째 재앙이 보이는구나, 기구한 내 팔자!

다음에는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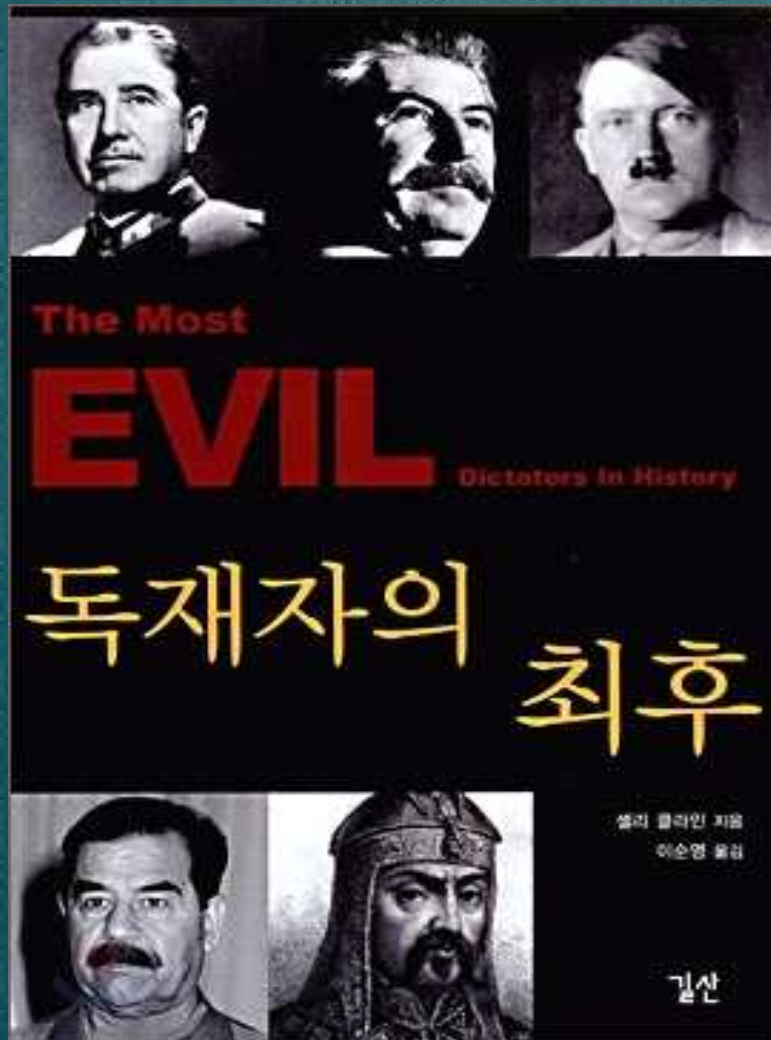
지금 손에 내 아들을 안고 있는데, 저기 다른 시신이 또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나야말로 불행하구나!

아아, 슬프도다! 가여운 어미, 아아, 내 아들!

크레온의 비극

(이미지는 셀리 클라인의 <독재자의 최후>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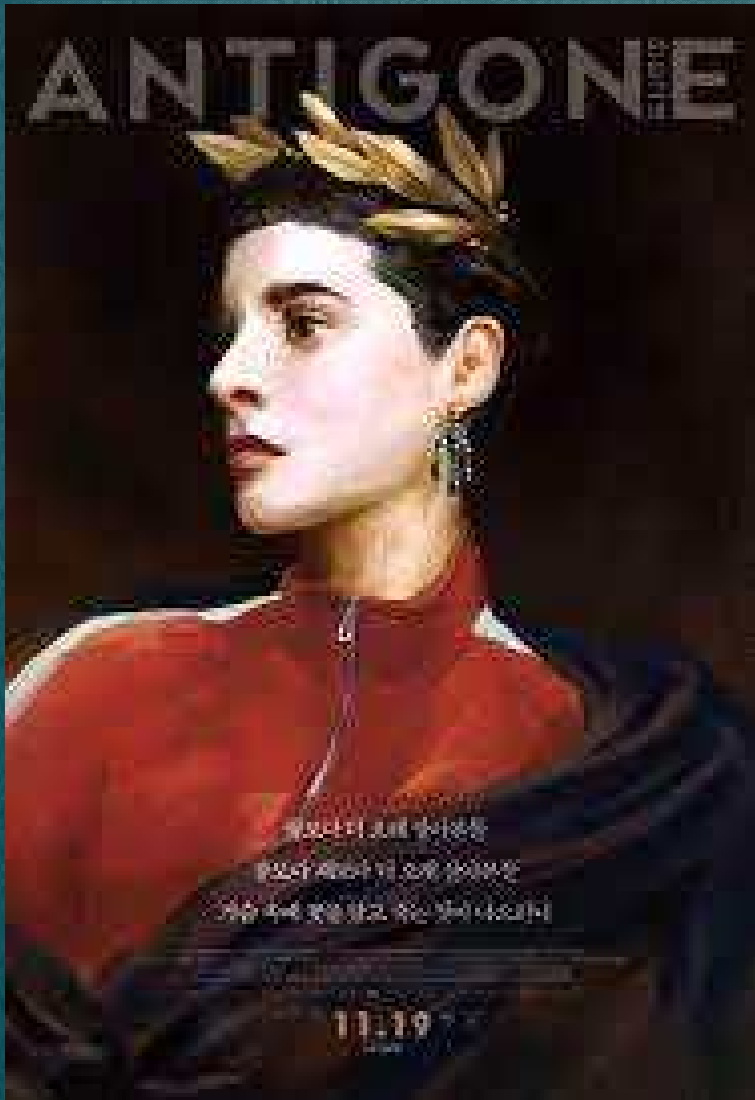


○ 아들 하인rich의 사망
(1066행)도 아내의 사
망도 미리 경고됨,

○ 자신이 사막으로 만든
그 도시에 고립된 독재자
로 전락하는 비극적 인물

○ 에우리피데스의 <메테
이아> 등을 제외하고 가
장 어두운 비극적 결말을
보이는 작품의 주인공

영웅 안티고네: 거부와 저항의 상징



○ 만델라 “결혼과 같은
사적 가치를 버리고 대의
위해 폭군에 대항하는 저
항인물”

○ 타협, 자포자기의 가능
성
영웅 선택하는 도전적 여성

○ 인간과 신들 그 누구에
게도 호소하지 않은 채,
죽음 선택, 거부와 저항
의 상징인물

코로스: 1348-1353행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의는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소리는,
그 벌로 큰 타격들을 받게 되어,
늙어서 지혜를 가르쳐 준다네.**

영상5- <안티고네>(2019)에 나타난 안티고네의 저항을 신화와 연관하여 토론



캐나다 몬트리올에 정착한 이민자 가족의 막내 안티고네에게 비극이 벌어진다. 두 오빠 중 하나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구속된 것.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안티고네는 오빠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용기 있는 그녀의 행동에 대중들은 안티고네를 SNS 영웅으로 만든다.